진흥원, 봉축위에 5000만원 지원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 사진)은 4월 10일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김규칠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서 볼 때 국가 위기 때마다 국민과 함께 짐과 아픔을 나눠온 불교정신을 오늘에 맞게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봉축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연등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코자 봉축위원회에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가섭 스님, (사)자비의전화 대표 선출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4월 7일 제20차 정기총회를 열고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사진〉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자비의전화는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부설 불교상담전문기관으로 가섭 스님은 이에 앞선 지난 3월 불교상담개발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가섭 스님은 총회에서 "불교와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심으로 임하겠다"며 "자비의전화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 권위자 정영호 前 관장 별세



한국 불교미술사학계의 원로이자 권위자인 호불(豪佛) 정영호 前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사진〉이 4월 7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발인은 10일, 장지는 경기도 양평 선영이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서울대 사범대 역사학과에 입학한 고인은 한국 미술사학계 대가였던 초우 황수영(1918~2011) 박사의 제자로 입문하면서 미술사 · 발굴 등에 인연을 맺었다.

1960년 황수영 박사 등이 중심이 돼 창립된 고고미술동인회 간사를 맡았던 그는 이후 굵직한 발굴성과를 낸다. 특히 1970년대 단양 신라 적성비(국보 제198호), 중원 고구려비(국보 205호)의 연이은 발굴은 고인을 최고의 고고학자 반열에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또한 고인은 1977년부터 200여 차례 일본 대마도를 방문해 한국 문화 유적 발굴과 양국 교류사 연구에도 힘썼다.

서울대 사범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고인은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문화재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등을 역임했다. 1979년 대한민국문화상 대통령상, 2001년 만해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 장애 편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설 것"

Interview

장애인식 개선 나선 성북장애인복지관장 선재 스님



4월 21일 '함께 걷는 성북' 걷기대회

장애 · 비장애 어울림에 힘써

"장애인, 명상 관심 활용 포교도"

"불자들 중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찰만 해도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드뭅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불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찰의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37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4월 21일 서울 성북천부터 청계천까지는 장애인들과 불자들의 걷기대회가 펼쳐진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번 걷기대회 '함께 걷는 성북, 하나되는 우리'를 개최하는 관장 선재 스님은 불교계 장애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들이 몸에 장애가 있는 이들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걷기대회를 준비했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걷기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치어리딩 공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천연비누만들기, 장애바로알기 퀴즈, 장애인 봉사동아리의 지압서비스 등이 펼쳐진다.

스님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그리고 불교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며 "장애인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만 이용하는지 아는데, 많은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비장애인, 장애인들이 함께 희망을 가꿔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스포츠재활 프로그램과 장애인 배드민턴반, 발달장애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등 일반 시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선재 스님은 "복지관 운영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데 의의 있다"며 "스포츠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부문이 많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불교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보다 많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스님은 "우리나라 사찰은 산중에 있어 휠체어를 끌고 사찰을 방문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최근에는 대형사찰에서 경사로와 전동리프트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템플스테이 한번 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장애인들도 사찰에서 예불이나 참배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최근에는 장애인들 사이 명상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런 관심을 활용해 불교포교에도 새로운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강좌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 동참

이마트 · 천축사 등, 4월 11일 복지재단 후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을 위해 불교계 안팎에서 정성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마트 · 천축사 등은 4월 11일 '더 나눔' 후원기금 각 2,000만원,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했다. 아울러 이날 익명의 후원자는 아동 · 청소년 복지기금 2억 원을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익명의 후원자의 후원금 중 일부는 '더 나눔' 행사 취지의 일환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

한편 '더 나눔' 행사는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행사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7년간 진행한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의 확대 행사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가수 장윤정, 박완규 등이 참여하며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장충체육관서 열린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 말기 난소암 환자 등 지원

3월 치료비 지원 선정 피사누 · 노선재 환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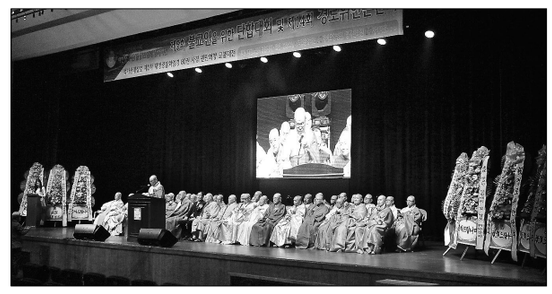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3월 치료비 지원 피사누 · 노선재 환자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생명나눔 이사 현조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과 두 환자의 보호자들이 참석했다.

피사누(14 · 남) 군은 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로, 2015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갑작스러운 전신통증과 피부발진, 양안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이때 피사누 군은 희귀난치병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노선재(40 · 여) 씨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며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난소암 말기란 판정을 받았다. 미혼모로 13년간 홀로 육아를 책임져왔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와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가정이 모두 심리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아름 기자**

수산자비선원 불교인 단합대회



창원 수산자비선원(주지 법상)은 4월 10일 KBS창원홀에서 '5회 불교인 단합대회 및 14회 경로위안 잔치'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태종사 도성 스님, 석가사 가산 스님, 가산문도회 회장 운암 스님, 홍창호 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등 각 종단 불교지도자 100여명과 관내 어르신 등 1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상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는 바램으로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석가사 조실 가산 스님의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사경 원만회향을 축하하는 고불 축발의식을 열어 의미를 더했다. **노덕현 기자**

대구 무심사 수륙 방생 대법회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 무심사(주지 무심)는 제10회 수륙용왕대재 및 방생대법회를 4월 9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증명법사로 조계종 원로의원 묘허 스님과 주지 무심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묘허 스님은 "불자들은 나아가 생과 사가 따로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 우주 근본의 주인공 참 나를 발견하는데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로터스월드, 미얀마 정수시설 준공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미얀마 바고 지역 난우쉐 사원학교 정수시설 지원 · 설치 사업을 3월 말 완료했다.

미얀마 바고 난우쉐 학교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은 그간 오염된 우물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해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정수시설을 지원, 상시적인 생활용수 부족 및 수질 문제를 겪고 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4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